

나의 십자가의 길

준비물 :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옥중편지, 15처 기도문, 메모지(인원수), 전지(조별), 크레파스, 싸인펜, 성가책

☞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15처를 묵상한 뒤 지금까지의 삶을 15처로 나누어 나의 십자가를 꾸며본다.

1. 조별로 동글게 모여 앉아 가톨릭성가 287(서라벌 엠티전)을 부른다.
2.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낭독한다(첨부 #2).
3. 응답성가 : 가톨릭성가 283(순교자 찬가)
4. 묵상 : 김대건 신부님의 옥중편지를 낭독한다(첨부 #3).
5. 나의 십자가의 길 만들기 : 아래의 도표(첨부 #1)를 참조하여 나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만든다.
6. 느낌발표 : - 나의 십자가의 길을 만들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 나의 십자가의 길중 1개처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인가?
7. 기도문 작성
소개한 1처를 기도문으로 작성하고 조원들이 돌아가며 조원의 십자가의 길을 기도한다.
예) 조원 1 : 제3처 ----- 을 묵상합니다. -----(기도문 내용 발표)
조원 2 : 제4처) ----- 을 묵상합니다. -----(기도문 내용 발표)
8. 마침노래 : 주님의 기도(다함께 손을 잡고 한다)
9. 조 십자가 제작
전지 위에 십자가를 그리고, 소개한 각 개인의 기도문을 하나씩 십자가 위에 붙인다.(조 십자가를 제작하기까지의 느낌을 전체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첨부 #1 십자가의 길

제1처	
예수님	예수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신학생으로 선발되심을 묵상합니다. - 1836년 프랑스인 모방 신부님에게 안드레아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선발 되셨습니다.
나	

제2처	
예수님	예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마카오로 유학가심을 묵상합니다. - 모방 신부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1836년 12월 다른 두 신학생과 같이 마카오로 장도 유학 길에 올랐습니다.
나	

제3처	
예수님	예수, 첫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첫 입국에 실패하심을 묵상합니다. - 마카오에서 공부하신 후 페레올 주교님의 명을 받고 경원을 거쳐 입국하시려다 실패하고 돌아가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나	

제4처	
예수님	예수, 어머니를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부제품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공부를 계속하던 김대건 신학생은 1844년 12월에 부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나	

제5처	
예수님	예수, 키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파리 외방선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재출국하심을 묵상합니다. - 1845년 입국에는 성공하였으나 사목자의 부족으로 신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자들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파리 외방선교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위험한 출국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나	

첨부 #1 십자가의 길

제6처	
예수님	성녀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의 얼굴을 씻어드림을 묵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중국에서 사제 서품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1845년 8월 17일 상해부근 금가항 신학교에서 교황대리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나	

제7처	
예수님	예수, 두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체포되심을 묵상합니다. - 선교사 입국과 외방선교회와의 연락을 위한 비밀항로 개척을 위해 황해도 동산지방을 답사하시다가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나	

제8처	
예수님	예수,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옥중 편지를 쓰시고 조정관리를 설득하심을 묵상합니다. - 투옥되신 김 신부님은 6회에 걸친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옥중에서 편지를 쓰셨고, 하느님의 진리를 받아 들이도록 조정관리들을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나	

제9처	
예수님	예수, 세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온갖 고문을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김 신부님의 학문과 재능을 인정하여 조정에서 교화시키려고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자 여러 차례의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신부님은 이에 끝까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제10처	
예수님	예수, 옷을 벗기우심을 묵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군문효수를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여러 차례의 고문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자 결국 조정에서는 신부님께 군문효수를 선고 하였습니다.
나	

첨부 #1 십자가의 길

제11처	
예수님	예수,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목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8번까지 목에 칼 맞으심을 목상합니다. - 형을 집행할 때 칼로 김 신부님의 목을 8번이나 쳤지만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던 신부님의 생명은 끊기지 않으셨습니다.
나	

제12처	
예수님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목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치명하심을 목상합니다. - 결국 김 신부님은 한강 새남터에서 서풍 받으신지 겨우 1년 만에 피끓는 청춘의 26세를 일기로 참수 치명하심으로써 생을 마치셨습니다.
나	

제13처	
예수님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을 목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미리내로 옮겨지심을 목상합니다. - 김 신부님이 순교하신 후 이민식 빈첸시오에 의해 150리가 넘는 거리의 미리내로 옮겨져 묻히게 되었습니다.
나	

제14처	
예수님	예수,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복자 시복을 받으심을 목상합니다. - 김 신부님은 1857년 가경자로 선포되었고, 1925년 비오 11세 교화에 의해 복자로 시복되었습니다.
나	

제15처	
예수님	예수, 부활하심을 목상합니다.
성 김대건	김 안드레아 신부 성인품에 오르심을 목상합니다. - 김 신부님은 1984년 한국 교회 창설 200주년을 계기로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다른 순교자 102명과 함께 시성됨으로써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나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

김대건 성인은 조선말기 정치, 사회의 시대적 암흑기에 태어나 모진 박해와 환란속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어간 우리 신앙의 선조이다.

김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일명 내포)에서 부친 김제준 이냐시오와 어머니고 우르술라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의 증조부 김진후는 1814년 2월 20일에 해미 옥중에서 순교하셨으며, 아버지 김 이냐시오도 1839년 기해 박해때 순교한 열심한 교우 집안이었다.

성인은 기해 박해가 시작되기 3년전인 1836년 프랑스인 모방 신부님에게 안드레아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상경하여 통역관인 유진길에게 중국어를 배운 뒤 그해 12월 모방 신부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른 두 신학생과 같이 16세의 어린 나이로 사제의 꿈을 안고 이국당 마카오로 장도 유학길에 오르셨다.

마카오에서 공부하신 후 1842년 프랑스 함대 제독 세실의 통역으로 6개월간 종사하다가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조국에 밀입국을 시도, 의주를 거쳐 서울로 향하다가 감시가 심하여 되돌아가 몽고의 '빠가자'에 기착하셨다. 그후 페레올 주교님의 명을 받고 경원을 거쳐 다시 입국하려다 실패하고 돌아가 공부를 계속하셨다.

1844년 12월에 부제품을 받으셨다. 조국을 걱정하며 백성을 깨우치고자 밤을 지새워 공부하시면서 6개 국어를 통달할 수 있었던 김 안드레아 부제는 이제 사제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었다.

1845년 단신으로 국경을 넘어 서울에 들어오는데 성공하셨으나 사목자의 부족으로 신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파리 외방선교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그 위험한 출국의 길을 다시 택하셨다. 조그마한 범선에 몸을 맡기고 험하고 위험한 항해를 건너셨다.

1845년 8월 17일 상해 부근 금가항 신학교에서 교황대리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음으로써 조선 최초의 사제가 되셨다. 조국도 아닌 중국의 만당 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고 그해 8월 페레올 주교와 함께 충남 강경 속칭 나바위라 불리는 곳에 밀입국하시는데 성공하셨다. 고국에 돌아오신 신부님은 불철주야 신자들을 돌보는데 힘쓰셨으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선교사 입국과 외방선교회와의 연락을 위한 비밀항로 개척을 위해 황해도 등산 지방을 답사하시다가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셨다.

투옥되신 김 신부님은 6회에 걸친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옥중에서 편지를 쓰셨고 하느님의 진리를 받아 드리도록 조정관리들을 설득하려 하셨다.

조정에서는 신부님의 박식한 학문과 재능을 인정하여 교화시키려 노력하였으나 불굴의 신앙으로 불복하자 그 후 여러 차례의 고문을 가하였음에도 끝까지 굽히지 않으셨다.

1846년 9월 16일 군문호수형의 선고를 받으시고 한강변 새남터에서 서품 받은지 겨우 1년만에 피끓는 청년의 26세를 일기로 참수 치명하심으로써 생을 마치셨다.

1857년 가경자로 선포되었고 1925년 비오 11세 교황에 의해 복자로 시복되신 후 1984년 한국 교회 창설 200주년을 계기로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다른 한국 순교자 102명과 함께 시성됨으로서 성인위에 오르셨다.

(자료 : 한국천주교회사 등)

성 김대건 신부님의 옥중편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태초에 만물을 마련하신 천주께서는 사람을 당신 모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에 그분의 의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오. 만일 이 험하고 비참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높으신 주인과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무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세상에 왔고 또 하느님의 더 큰 은혜로 성세를 받은 덕으로 그의 교회의 신자가 되어 우리는 참으로 귀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이름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무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배교자가 되어 천주께 배은망덕하는 죄인이 될 것인데 그의 은혜가 더 풍성하였던 만큼 이 배은망덕은 더 미움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적당한 때에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추위도 더위도 고생도 돌보지를 않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서 추수때에 곡식이 잘되고 잘 영글면 그는 땅 흘린 것을 모두 잊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여집니다. 그러나 곡식이 잘 되지 않고 가을이 되어 질과 빈 이삭밖에 차례가 오지 않으면 땅 흘린 것과 거름과 수고를 후회하고 그 밭을 다시는 보기도 싫어합니다. 아! 아! 천주의 짙은 땅이고 사람은 좋은 씨앗입니다. 천주께서는 당신 은총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죽으시고 그의 성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교와 목자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치심의 정성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추수와 심판의 때가 이르러 우리가 그의 은총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으면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풀이라면 하느님의 아들이던 우리가 그의 원수가 될 것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벌을 지옥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교형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직접 수없는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의 괴로움으로 그가 당신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도 십자가와 고난 가운데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사도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항상 천가지 박해 가운데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 조선에도 5-60년 전에 들어온 교회가 여러번 풍파를 겪었지만 아직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박해는 다시 시작되어 여러 교우와 나 자신이 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 모두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가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생(人生)은 이 참혹한 지경을 보고 괴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주께서는 우리 머리칼의 수를 알고 계시며 그의 허락없는 그 중에 한 오라기도 우리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고 우리의 으뜸이신 예수의 편에 서서 언제나 세속과 마귀와 대항하여 싸웁시다. 불안하고 혼란한 이 때에 우리는 용감한 군인과 같이 갑옷을 입고 전쟁 마당에서와 같이 싸워서 이깁시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덕을 잊지 말고 서로 서로 도우며 천주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여기에 갇혀 있는 몇몇 교우는 천주의 은총으로 잘들 있습니다. 그들이 사형을 받게 되면 그 가족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편지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 있어 싸우러 나갑니다. 제발 여러분은 덕을 닦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험한 시기에 쓸데없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밤낮으로 천주의 도움에 힘입어 세가지 원수, 즉 세가지 욕정과 싸우고 박해를 인내로 견디어 나가면서 천주의 영광을 위하여 남아 있을 이들의 구원에 힘쓰십시오. 박해의 때는 천주의 시험입니다. 세속과 마귀를 이김으로써 덕과 공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하여 겁을 내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천주를 섬기는 데에서 뒷걸음치지 말며 오히려 성인들의 뒤를 따라 교회의 영광을 더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군인이며 선민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비록 여러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애덕을 잊지 마시고 서로 참고 서로 도우며 천주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더 쓰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을 모두 천국에서 만나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마디 하고자 하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천주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천주께로부터 오는 상이나 벌입니다. 박해까지도 천주의 허락으로만 오는 것이니 참을성 있게 또 천주를 위하여 견디십시오. 다만 당신 교회에 평화를 들려주시도록 눈물로 간청하십시오. 내 죽음은 물론 여러분에게 타격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슬픔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천주께서는 여러분에게 나보다 나은 목자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 마시고 천주의 큰 애덕으로 마땅하게 섬기도록 힘쓰십시오. 애덕으로 결합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결합하여 있을 것이고 영원히 천주 대전에서 서로 만나 끝없는 즐거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오. 천만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옥중 편지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지이다.

천주 무시지시(無始之時)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설(配設)하시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오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위자(慰藉)와 그 뜻을 생각할지이다.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번 나서 우리를 대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난 보람이 없고, 있어 쓸데없고, 비록 주은(主恩)으로 세상에 나고 주은으로 영세 입교하여 주의 제자 되니 이름이 또한 귀하거니와 실은 없으면 이름을 무엇에 쓰며, 세상에 나 입교한 효험(效驗)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배주배은(背主背恩)하니 주의 은혜만 입고 주께 득죄(得罪)하면 아니 낭만 못하리.

밭을 가꾸는 능부를 보건대 때를 맞추어 밭을 갈고 거름을 넣고 더위에 신고(辛苦)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씨를 가꾸어 밭 거들 때 이르러 곡식이 잘 되고 여물면, 마음의 땅낸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며 흥주며 흥복할 것이요, 곡식이 여물지 아니하고 밭 거들 때 빈 대와 껍질만 있으면 주인이 땅낸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거름내고 들인 공부로써 그 밭을 박대하하니, 이같이 주 땅을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으로 벼를 삼아 은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구속하여 피로 우리를 울주사 자라고 여물도록 하여 계시니, 심판날 거두기에 이르러 은혜를 받아 여운 자 되었으면 주의 의자로 천국을 누릴 것이요, 만일 여물지 못하였으면 주의 의자로 원수가 되어 영원히 아담한 벌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온 제형들아, 알지이다. 우리 주 예수 세상에 내려 친히 우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로조차 성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나게 하신지라.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우리 치고 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할지니 예수 승천 후 종도(宗徒)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성교 두루 우수 간난(艱難) 중에 자라니, 이제 우리 조선이 성교 들어온 지 5,60년에 여러 번 군난(窘難)으로 교우들이 이제까지 이르고 또 오늘날 군난이 치성(熾盛)하여 여러 교우와 나가지 잡히고 아울러 너희들까지 환난(患難)을 당하니, 우리 한몸이 되어 애롭지심(哀痛之心)이 없으며 육정(肉情)에 차마 이별하기 어려움이 없으랴.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되 작은 열골이라도 주 돌아보신다 하고 모르심이 없어 돌보신다 하셨으니, 어찌 이렇다 할 군난이 주명(主命) 아니면 주상주벌(主賞主罰) 아니랴.

부디 서로 우애(友愛)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환난을 건기까지 기다리라.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상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위주광영(爲主光榮)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하여라.

찰말이 우궁한들 어찌 지필(紙筆)로 다하리. 그친다.

우리는 미구에 전장에 나아갈 터이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 가 만나자.

이런 군난 때는 주의 시험을 받아 새속과 마귀를 쳐 덕공(德功)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난에 놀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사주구령사(事主救靈事)에 울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취를 만만 수치(修治)하여 성교회 영광을 더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자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공련(矜憐)하실 때를 기다리라.

찰말이 우수하되 거처가 라담치 못하여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親口)하노라.

- 바오로딸 딸간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 김대건 신부의 편지 모음' 에서 발췌